

대학에 진학한 시설보호 청년의 결혼 태도 영향 요인

Study on Influencing Factors on Attitude toward Marriage of Undergraduate with Institutional Background

정선욱*, 이민정**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SunWook Jung(swjeong@duksung.ac.kr)*, MinJung Lee(karamj37@naver.com)**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에 진학한 시설보호 청년의 결혼 태도와 결혼 태도 영향요인을 발견하는 것이다. 대학에 진학한 시설보호 청년은 발달단계상 성인이행기에 있으며, 이 발달단계에서 중요한 발달과업 중의 하나는 친밀하고 낭만적인 관계 맺기, 결혼의 선택이다. 본 연구는 이들의 결혼 이슈를 결혼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국의 양육시설과 자립생활관의 협조를 받아 총214명의 대학 진학 시설보호 청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연구 결과, 이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결혼을 외로움을 해소시켜주는 바람직하고 좋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결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경제 수준, 자아정체감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 하위3요소 가운데 자기 수용성, 즉 자신감과 자신을 신뢰하는 정도가 결혼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보호 청년의 자립 과정에서 결혼 이슈를 고려하는 것의 필요성과 의의, 결혼이 실질적인 자립 지원책으로 기능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결혼 태도 | 시설보호 청년 | 자아정체감 | 성인이행기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influencing factors on attitude toward marriage of undergraduate with institutional care background. Intimate romantic relationship is one of developmental tasks of emerging adulthood. And attitude towards marriage is connected with intimate, romantic relationship. This study has focus on attitude towards marriage out of marriage issues. The method of this study is the survey on 214 undergraduates who have lived in institution for children over two years. The results of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y are favorably inclined towards marriage. Second, gender, financial conditions, ego-identity exercise a significant effect on attitude towards marriage. Subcategory of ego-identity that affects attitude towards marriage the most is self-receptiveness.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are discussed finally.

■ keyword : | Undergraduate with Institutional Care Background | Attitude Towards Marriage | Ego-identity | Emerging Adulthood |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대학에 진학한 자립지원대상자(이하, 대학에 진학한 시설보호 청년)의 결혼 태도 및 영향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학에 진학한 시설보호 청년의 결혼 이슈에 주목한 이유는 2가지이다.

첫째, 대학에 진학한 시설보호 청년은 만18세가 지나 퇴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연령층으로, 발달단계상 성인이행기(emerging adulthood)에 해당하는 집단이다. 성인이행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이 늦춰지면서 생겨난 발달단계로서 일반적으로 사랑과 직업에서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시기이다[1]. 이 시기에 자신의 인생을 함께 할 배우자를 찾는 것은 자기 개념과 심리적 안정에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는 성인기의 주요 발달과제이며 성인 발달의 주요한 이정표이다[2]. 또한 양질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 능력은 성인이행기의 중요한 발달 지표이기도 하다[3].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행기에 낭만적 사랑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성인이행기에 있는 시설보호 청년을 대상으로 친밀감을 기반으로 하는 낭만적 관계와 관련된 결혼 이슈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친밀한 파트너의 선택, 이들과의 관계의 질은 어린 시절 부모-자녀 간의 유대에 대한 기억의 영향을 받는다[2]. 즉, 부정적인 부모-자녀 관계의 경험은 성인의 관계에까지 그 영향을 미쳐서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믿거나 친밀한 배우자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들 수 있다[2]. 또한 부모자녀관계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거부당하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안 수준이 낮은 반면, 부모가 거부적이고 무관심하다고 지각하는 자녀들은 부정적인 자아상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을 갖는다[4].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위탁 보호 청년의 경우 10대 임신이나 성매매 그리고 자신 또한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았다[5].

바로 이러한 아동기 부모와의 애착 경험이 성인의 낭

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 요인들에서 본 연구의 두 번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원가족과 물리적 단절을 넘어 심리·정서적 단절을 경험한 시설보호 청년의 경우 성인이행기의 주요한 발달 과제인 이성과의 낭만적 관계 형성 및 경험이 비시설 청년의 그것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기 애착이 성인기 낭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시설보호 청년이 이성 교제 및 결혼에서 취약한 상황에 처할 수 있고 그런 이유에서 시설보호 청년의 결혼 이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원가족과의 부정적 경험, 불안정한 애착 경험을 가진 시설보호 청년이 안정형의 배우자를 만나 민감하고 지지적인 관계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전의 부정적인 애착 경험이 수정될 수 여지가 있다. 즉, 아동기에 불안정한 애착을 발전시킨 경우라도 적절한 환경에서 “획득된 안정감(earned security)”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6].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원가족과의 관계 단절을 경험한 시설보호 청년이 성인이행기에 누구를 만나 교제를 하고 이성 교제의 경험은 어떠하며 그래서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여 결혼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성인이행기에 있는 시설보호 청년에게 사랑, 결혼은 중요한 발달과제 중 하나라는 점, 부정적인 원가족 경험을 가진 시설보호 청년에게 결혼은 부정적인 경험의 연장선에 놓일 수도 혹은 새로운 관계 경험의 계기를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국외에서는 위탁보호 청년의 친밀한 관계에서의 다양한 위험성(예: 10대 임신, 성매매, 원하지 않는 임신, 아내 폭력 등)에 주목하여, 건강하고 안전한(성적) 관계 개발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교육에서는 위탁보호 청년들과 건강한 관계에 관한 주제로 교육이나 상담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건강한 관계의 경험이 없거나 적은 청년들이 건강한 관계에 대한 나름의 비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도 다루고 있다[5].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정외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자립지원 표준화프

로그래(Ready? Action!)의 8대 영역 중 하나인 자기보호 프로그램에서, '건강한 이성교제'라는 제목으로 이성교제에 대한 내용(예를 들어, 이성교제, 성적인 행동, NO라고 이야기하기, 부모 되기,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하기 등)을 다루고 있다. 이성교제의 위험성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만이 아닌 건강한 이성교제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러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정의 보호 경험에 있는 아동·청소년들과 이성교제라는 주제로 대화할 때 교육자(상담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시설보호 청년의 이성관계, 교제, 결혼에 대한 관심의 부재는 우리나라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Ready? Action!)의 초점이 주로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Ready? 프로그램의 대상임)에 맞춰져 있는 것과 관련된다. 그래서 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에서 고등학교 졸업이후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취업 준비 중 포함)한 청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Action! 프로그램의 대상이다. 그런데 Action!은 보호종결 이후 자립생활 정착까지의 대상자에게 사회초기 적응 및 자립기반구축, 상담 및 사례관리, 진로지도 및 인턴쉽 프로그램, 긴급생활지원 및 의료지원, 심리정서지원을 그 내용으로 한다. 프로그램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Action!은 주로 퇴소 후 생존과 관련된 지원(집을 구하고 직장을 구하고 돈을 벌고 아플 때 치료받고 하는 일)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결과 시설보호 청년의 이성관계, 교제, 결혼의 이슈는 Ready?에서는 발달단계 상의 과업에 맞지 않아서, 그리고 Action!에서는 생존이나 안전 이슈에 밀려 다루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아동복지 연구 분야에서도 시설 청년의 이성관계, 교제, 사랑, 결혼 이슈는 퇴소생의 생활 전반을 다루는 연구의 일부로 소개될 뿐이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주 연구 주제로 다루어진 적이 없는 시설보호 청년의 결혼 이슈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다소 포괄적인 결혼 이슈를 결혼 태도에 국한하여 살펴 보았다. 결혼 태도는 결혼과 관련된 개인적인 인식과 가치기준[7], 결혼 의미, 규범 등 결혼 전반에 대한 선호

[8] 등으로 결혼 가치관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배우자 선택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도 담기기 때문에[9],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탐색적으로 이해하는데 적절한 개념이다.

시설보호 아동은 양육시설에서 만 18세를 보내게 되면 퇴소 혹은 연장을 결정하게 되며, 자립 지원을 요하는 상황은 크게 취업형과 진학형으로 나뉜다. 본 연구는 퇴소 혹은 연장과 관계없이 진학형 자립지원대상자인 대학에 진학한 시설보호 청년¹⁾의 결혼 태도 및 영향요인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에 진학한 시설보호 청년의 결혼 태도는 어떠한가?
2. 대학에 진학한 시설보호 청년의 결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시설보호 청년의 결혼 태도

시설보호 청년에게 결혼은 어떤 의미일까? 퇴소생 생활 전반에 관한 기존 연구를 통해 이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우선 이성 교제와 관련하여 강현아 등(2009)의 조사에 의하면, 대학 재학 중인 퇴소청소년의 46.9%가 시설에 대한 편견, 거절에 대한 두려움, 혹은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 이성관계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10]. 그런데 결혼에 대한 생각에서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다'에 68.9%가 응답하였고 '자신 없음'은 19.6%로 나타났다. '자신 있다'는 응답 비율은 대학 재학중인 퇴소청소년이 고졸 퇴소청소년에 비해 높아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인간은 관계적 욕구를 추구하는 존재로서 바람직한 이성관계는 성장과 훈련의 장이 될 뿐 아니라, 이후의 배우자 선택과

1) 본 연구에서 진학형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취업형보다 시설과 연락이 닿는 경우가 많아 설문조사가 용이하다는 현실적 이유와 퇴소 후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진학형 자립지원대상자를 통해 시설보호 청년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결혼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이다[11].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성교제에 대해서는 50% 정도가 자신 없음의 태도를 취하는데 결혼 생활에서는 70%가 자신 있다고 응답하는 상황은 모순적이다. 이처럼 현재 당면한 이성교제의 어려움과 달리 미래 발생할 결혼 생활에 대해 높은 자신감을 보인 것은 결혼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질적 연구를 통해서도 이성교제 및 결혼 등에 대한 평균 수치 이면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이성교제를 일반적인 대인관계의 특수한 형태(예를 들어 이인적/배타적 관계)로 이해할 때, 시설 퇴소 청년이 겪는 대인관계 상황을 통해 이성교제 경험을 추측할 수 있다. 퇴소한 지 1년이 지난 시설퇴소 청소년의 자립과정을 연구한 김명성(2013)에 의하면, 시설 출신이라는 자격지심으로 대인관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사람을 잘 믿지 못하지만 한 번 믿기 시작하면 폭 빠져 상처를 입는 시설 퇴소 청년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12]. 또한 연애 과정에서나 결혼을 앞두고 시설출신임을 드러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로 인해 사람 만나기를 꺼리는 모습도 있다[13].

결혼에 대한 생각의 경우, 시설보호 청년은 결혼에 대해 갈등적인 심리상태를 보인다.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 보호받고 의지하고 싶어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 자신의 부모와 달리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가 되는게 소원이지만 자신을 '결혼생활 실패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여겨, 무책임한 부모를 닮게 될까봐, 그리고 부모와 같은 운명으로 살아갈까 걱정하여 결혼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갖기도 한다[12-14]. 또한 시설보호경험이 있는 경우 가족에 대한 모델 부재로 가족에 대한 순기능과 가족원 간의 역할 등에 대하여 거의 무지하며, 이로 인해 결혼에 대해 두려움과 갈등을 갖는다[16].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시설보호 청년은 이성교제를 포함한 대인관계에서는 소극적이거나 회피적, 혹은 관계에 몰두하는 양상을 드러낸다. 그러나 결혼에 대해서는 외롭고 불안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에서 결혼에 대해 낙관적인 기대를 품거나 부모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갖는 양면성을 보인다. 그러나 시설보호 청년이 친밀한 관계에서 보이는 자신 없음과 두려움을 고려할 때, 친밀한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결혼 생활에 대한 이들의 바람은 다소 막연한 희망사항에 그칠 위험성 또한 내포한다.

외국의 상황은 어떠할까? 우리나라와 달리 서구는 가정의 보호에서 가정위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가정위탁 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서구의 경우에도 위탁 보호 종료 후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청년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낭만적 관계 경험에 대한 연구들은 적다[17].

Bowlby(1969)는 사례연구를 기초로 하여 시설보호 아동은 어머니와 오랫동안 분리된 상태에서 자라면서 경험하는 모성 상실로 인해 성장 후에도 다른 사람과 정서적 관계를 맺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18]. Downes(1992)가 2년 반에 걸쳐 위탁 청소년과 위탁 가족원의 상호작용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위탁 청소년들은 친부모로부터의 거절을 포함한 과거의 어려움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것 혹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힘들어했다[19].

이성 간의 낭만적 관계(romantic relationship)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실제로 건강한 관계가 무엇 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모 혹은 역할 모델을 갖지 못한 위탁보호 아동의 경우, 관계에서 찾거나 기대해야 하는 긍정적인 부분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고 건강한 관계에 대한 자신만의 비전을 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위험한 관계에 빠질 위험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5]. 위탁보호에서 종료된 청년(18세-21세)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10명의 사회복지사를 통해 이들 보호 종료 청년들의 낭만적 관계 경험 및 낭만적 관계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을 연구[17]한 경우도 있다. 사회복지사들을 인터뷰한 연구[17]에 의하면, 위탁보호 종료 청년들은 소속감과 안정감(stability), 안전성(security)을 낭만적 관계에서 기대하고 자립에 대한 굉장한 책임감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그리고 연결(connection)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노력으로 낭만적 관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낭만적 관계에 대한 인식은 또래에 비해 긍정적이지 않았다[17]. Ricks(2003)에 의하면, 시설에서 자란 여성이 일반여성보다 결혼의 부적응도가 높고 부모역할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20].

1980년대, 1990년대 위탁보호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결혼 경향에 대한 미국의 연구를 보면, 이들은 일반 집단에 비해 더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이혼을 더 많이 하고 어린 나이에 더 많이 재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대 이후에는 이러한 경향이 변화하여 위탁보호 종료 청년들이 일반 집단의 또래와 비교했을 때 결혼이나 동거에서 비슷하거나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7].

2. 결혼 태도 영향 요인

본 연구가 시설보호 청년의 결혼 태도에 주목한 것은 원가족 분리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다. 그런데 원가족 분리(혹은 관계 유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애착이론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이슈이다[21].

애착이론에 의하면, 애착 과정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22]. 이것은 생애 초기에 양육자 사이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은 아동기를 거쳐 청년기, 성인기까지 계속될 뿐 아니라, 개인의 일(직업), 결혼생활, 자녀양육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23][24].

발달단계에 따라 애착대상은 부모에게서 친구, 이성 파트너, 배우자 등으로 이동하는데[25], 성인기는 애착 대상이 부모나 친구에서 이성 관계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불안정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해결되지 못한 이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성 관계에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11]. 이러한 어려움과 스트레스는 자기 행동에 자신이 없고 애정대상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며, 상대방을 잘 신뢰하지 못하거나 너무 쉽게 신뢰하여 만족스런 애정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다[26].

국내 여러 연구에서 애착과 결혼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김미현(2009)에 의하면, 대학생의 결혼 태도에

부 혹은 모와의 애착관계가 영향을 주었다[7]. 민순옥(2009)에서는 남녀 대학생의 동성 부모와의 애착이 이성 관계 태도와 결혼 태도 형성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27]. 안소영(2011) 연구에서는 안정형 애착유형이 다른 애착유형에 비해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8]. 즉, 안정형 애착을 갖는 경우 성(sex), 종교, 돈, 사랑, 자녀, 대화, 가치관, 갈등해결 등의 요소가 결혼생활의 행복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Main 등(1985)은 성인 애착 인터뷰를 통해 애착을 둘러싼 경험, 생각, 감정의 안정성 정도를 측정된 결과, 안정적으로 평가된 부모들은 자신의 부모,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애착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며 애착 및 애착 관련 경험을 성격의 중요 부분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29]. 이러한 결과는 안정적 애착을 갖는 성인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관계의 소중함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자연스럽게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로 이어진다. Simpson(1990)은 144쌍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6개월간 낭만적 사랑에 미치는 애착의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애착유형이 안정형인 사람들은 낭만적 관계에서 높은 수준의 상호의존성, 신뢰, 책임감, 만족감을 나타낸 반면 불안형이나 회피형은 이러한 특성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30]. Feeney & Noller(1990) 역시 애착이론이 낭만적 사랑을 설명하는데 여전히 유용함을 입증하였다[31]. 즉, 안정적 애착을 가진 사람은 다른 유형에 비해 관계를 지속하는 기간이 길다. 또한 관계에서 긍정적이며 자신 확신이 크기 때문에 미실현 소망 척도 점수가 낮은 특징이 있다. 그래서 안정적 애착을 가진 사람은 낭만적 관계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논의로부터 원가족과의 애착관계 경험에 의해 형성된 애착유형이 이성교제, 배우자 선택, 결혼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즉, 안정애착이 불안정 애착보다 결혼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설보호 청년의 애착유형을 결혼 태도 영향 요인의 하나로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자아정체감도 친밀감을 비롯한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Erikson(1968)은 정체감에 대한 자신감의 달성은 성숙한 형태의 관계 친밀성이 발달하는 근거라고 제안하였다[3]. Erikson에 따르면, “자아 상실의 두려움(fear of ego-loss)” 없이 파트너에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은 성인기 초기의 주요 과제이며, 자아정체감을 찾는데 실패한 청소년은 낭만적 배우자와의 지속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3]. Sloan & L'Abate(1985)는 성인 초기의 발달과업인 정체감과 친밀감의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결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32].

국내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은 이성관계 만족도와 결혼관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2][33].

본 연구는 이상의 기존 연구에 기초하여 결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애착유형, 자아정체감을 설정하였다. 이에 덧붙여 인구·사회적 변수로 성별, 연령, 경제수준을 포함시켰다. 성별 또한 결혼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28][34-38]²⁾. 이삼식(2006)은 미혼남성에 비해 미혼여성의 결혼관이 더욱 부정적이라고 보고하였으며[35], 마찬가지로 홍은영(2011)은 여성에 비하여 남성의 태도가 결혼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지니며, 가족가치관과 결혼생활의 책임을 더 높게 지각한다고 하였다[37]. 다음으로 연령도 결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연령 효과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며,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할 의향이 높았다[35][41]. 김건영(2009), 안소영(2012)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인 결혼관을 가지며 가족가치관과 결혼생활의 책임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8][36]. 마지막으로 경제 수준은 미혼남성의 경우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경제 수준이 높은 경우 결혼생각을 많이 하며[42], 결혼생활의 책임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제적 수준은 결혼태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28][37].

III. 연구방법

1. 조사 대상자 선정

대학에 진학한 시설보호 청년에 대한 표집은 2단계로 진행되었다. 우선 『2010년 아동복지시설 일람표』에 기재된 전국 239개 양육시설과 자립생활관 12곳의 명단을 표본틀로 하여 양육시설 30%, 자립생활관 50% 표본추출을 목표로 각각의 표본틀 내에서 체계적 표본추출을 실시하여 시설을 표집하였다. 이렇게 표집된 시설에 전화를 걸어 자립담당 직원과 통화하고 연구의 목적 등을 설명한 후 대학에 진학한 청년에 대한 조사 협조를 구하였다. 전화 접촉 과정에서 조사를 허락한 시설에 대해서는 설문지를 우편 발송하거나 시설 자립담당자 혹은 시설 대표 전자우편으로 설문지를 전송하였다. 대학에 진학한 시설보호 청년의 경우 학기 중에는 시설이 아닌 기숙사 등에서 생활하는 사례가 많다. 그로 인해 시설에 설문지를 우편 발송하여 조사하는 경우 자료 수집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이유로 시설 종사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내고 시설 종사자가 다시 시설보호 청년에게 전자우편에 첨부된 설문지를 전달하는 방식의 조사가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조사는 2011년 2-4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총 214명이 조사에 응했는데 응답 오류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외된 설문지는 없었다. 그래서 총 214명의 자료를 모두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2.1 결혼태도

결혼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예리(2008)[43]가 사용한 17개 문항³⁾ 가운데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항(10, 11, 13, 14, 17번)을 제외하고 12개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결혼은 바람직한 제도이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결혼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 ‘결혼은 외로움을 덜어준다’, ‘결혼은 좋은 것이다’,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다’, ‘결혼은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 ‘결혼은 경제적인 안정을 갖고 온다’, ‘결혼은 사람을 성숙시킨다’,

2) 결혼 후 여가제약[39]을 비롯하여 일·가정양립의 어려움[40] 등도 여성의 결혼태도를 부정적인 것으로 만든다.

3) 대학생을 비롯하여 미혼남녀의 결혼 태도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척도 중 하나이다.

‘결혼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결혼에 실패했을 경우 재혼할 수 있다’, ‘결혼과 상관없이 동거할 수 있다’ 등 12문항이다. 12개 문항은 ‘매우 그렇다(5점)’, ‘대체로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 의사가 있고 결혼에 대해 호의적·개방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0$ 으로 나타났다.

2.2 애착 유형

애착유형은 Batholomew & Horowitz의 RQ(Relational Questionnaire)를 사용⁴⁾하였다. 이 척도는 각각의 4가지 애착유형을 표현한 4가지의 진술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4가지 애착유형이 일반적인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신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7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45]. 7점 척도 평정 이후, 이들 4가지 진술문 가운데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해주거나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진술문을 선택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선택의 결과를 응답자 애착유형으로 보았다. 4가지 진술문 가운데 A(안정형)유형을 선택한 경우는 안정형 애착으로, 이외 B유형(거부회피), C유형(몰두양가), D유형(공포회피)을 선택한 경우는 불안정형 애착으로 분류하였고 안정형 애착을 기준 변수로 더미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2.3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의 경우, 박아청(1996)이 개발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질문지 가운데, 자아정체감 유예, 자아정체감 혼미 등의 부정적 문항을 제외하고 13개 문항만을 사용한 문승태(2002), 조명실(2006) 연구에 기초하여 측정하였다[46-48].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아정체감 척도의 Cronbach's $\alpha = .869$ 이다.

한편, 자아정체감은 미래확신성(시간적 경과에 대한

희망의 정도, 5개문항), 자기수용성(자신감을 갖고 자신을 신뢰하는 정도, 4개 문항), 주체성(주관적인 역할 혹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배하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느낌의 정도, 4개 문항) 등의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된다. 하위영역의 경우에도 점수가 높을수록 미래확신성, 자기수용성, 주체성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2.4 성별, 연령, 경제 수준

성별은 여자를 기준 변수로 더미 코딩하였고 연령은 응답자가 직접 기입한 나이 변수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수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로 측정하였고 비수급을 기준 변수로 더미 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결혼 태도 및 관련 변수 기술통계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99명(46.3%), 여자가 115명(53.7%)로 여자가 조금 더 많았고 평균 연령은 19.9세로 성인이행기(emerging adulthood)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rnett(2000)는 성인이행기를 18세부터 25세까지로 설정하였다[49]. 경제수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를 통해 살펴본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161명(75.2%)로 나타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설 보호 청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애착유형은 안정형과 불안정형으로 나뉘서 분석하였는데, 안정형 애착이 107명(50.0%), 불안정형 애착이 104명(48.6%)으로 애착유형에서 안정형, 불안정형 애착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의 경우 미래확신성, 자기수용성, 주체성의 3가지 하위 영역 모두 평균 점수가 4점 척도에서 3점 이상으로 미래확신성, 자기수용성, 주체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결혼 태도 조사 결과는 [표 3]와 같다. 결혼 태도 12개 문항의 평균은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 3.57(표준편차: 0.60)으로 결혼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임을 알 수 있다.

결혼 태도 12개 문항 가운데 ‘결혼은 바람직한 제도

4) 애착에 관하여 알아보는 척도로 Batholomew & Horowitz(1991) RQ(Relationship Questionnaire)와 Collins & Read(1990)의 RAAS(Revised Adult Attachment Scale)가 대표적이다[44].

이다', '결혼은 외로움을 덜어준다', '결혼은 사람을 성숙 시킨다', '결혼은 좋은 것이다' 등이 상대적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시설보호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 외로움을 덜어주고 사람을 성숙시키는 좋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결혼과 상관 없이 동거할 수 있다', '결혼은 경제적인 안정을 갖고 온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동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났다.

표 1. 응답자 특성(1) (n=214)

변수	범주	빈도(백분율)
성별	남자	99(46.3)
	여자	115(53.7)
경제 수준	수급	161(75.2)
	비수급	53(24.8)
애착유형	안정형	107(50.0)
	불안정형	104(48.6)
	결측값	3(1.4)

표 2. 응답자 특성(2)

변수	사례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연령	213	19.9	1.61	18	29
자아정체감(평균)	214	3.12	0.45	2.08	4.00
미래확신성(평균)	214	3.00	0.65	1.40	4.00
자기수용성(평균)	214	3.32	0.55	1.50	4.00
주체성(평균)	214	3.06	0.46	2.00	4.00

표 3. 결혼 태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결혼은 바람직한 제도이다	1 (0.5)	6 (2.8)	55 (25.7)	84 (39.3)	68 (31.8)	3.99 (0.9)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14 (6.5)	42 (19.6)	50 (23.4)	64 (29.9)	44 (20.6)	3.38 (1.2)
결혼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	3 (1.4)	14 (6.5)	71 (33.2)	87 (40.7)	39 (18.2)	3.68 (0.9)
결혼은 외로움을 덜어준다	1 (0.5)	8 (3.7)	37 (17.3)	114 (53.3)	54 (25.2)	3.99 (0.8)
결혼은 좋은 것이다	2 (0.9)	8 (3.7)	68 (31.8)	85 (39.7)	51 (23.8)	3.82 (0.9)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다	7 (3.3)	39 (18.2)	61 (28.5)	61 (28.5)	46 (21.5)	3.47 (1.1)

결혼은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	4 (1.9)	29 (13.6)	79 (36.9)	62 (29.0)	40 (18.7)	3.49 (1.0)
결혼은 경제적인 안정을 갖고 온다	7 (3.3)	50 (23.4)	88 (41.1)	47 (22.0)	22 (10.3)	3.13 (1.0)
결혼은 사람을 성숙시킨다	2 (0.9)	12 (5.6)	40 (18.7)	104 (48.6)	56 (26.2)	3.93 (0.9)
결혼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1 (0.5)	16 (7.5)	61 (28.5)	94 (43.9)	42 (19.6)	3.75 (0.9)
결혼에 실패했을 경우 재혼할 수 있다	7 (3.3)	25 (11.7)	51 (23.8)	102 (47.7)	29 (13.6)	3.57 (1.0)
결혼과 상관없이 동거할 수 있다	45 (21.0)	54 (25.2)	60 (28.0)	48 (22.4)	7 (3.3)	2.62 (1.1)

2. 결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에 진학한 시설보호 청년의 결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F=8.311, p=0.000), 회귀식의 설명력은 19.7%로 나타났다. 시설보호 청년의 결혼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아정체감, 구체적으로 자기수용성, 성별, 경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회귀계수(B)를 통해 결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살펴보면, 성별>자기수용성>경제 수준의 순서로 나타났다.

결혼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성별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결혼 태도에 차이가 있는데 여자보다 남자의 결혼 태도 점수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가 여자보다 결혼을 호의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에 비해 결혼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 [7],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결혼관이 긍정적이라는 연구들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된다[28][37][38][50].

다음으로 자아정체감의 하위 영역 가운데 자기 수용성[5]이 결혼 태도에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즉 자기수용

5) 자기수용성 관련 4개 문항은 '나는 이 세상에 있으나마나 한 존재이다', '내가 보잘 것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나는 믿음만한

성 정도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해 호의적이며 결혼을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자기수용성은 자신감, 자신을 신뢰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자신에 대한 확신이 높을수록 결혼에 대해서도 호의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정체감 발달과 친밀성 발달 간의 관계, 자아정체감과 배우자와의 낭만적 관계 형성·유지 등에 대한 기존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3].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체감 수준과 이성교제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32]에서도 자아정체감의 하위 요인 가운데 자기 수용성이 이성교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이루어진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결혼관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도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33].

마지막으로 경제 수준, 즉 수급 여부가 결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을 받고 있는 시설보호 청년이 비수급 청년에 비해 결혼 태도 점수가 낮아서 결혼에 대해 덜 호의적임을 알 수 있다. 교육이나 취업과 같은 경제적 자원이 결혼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48]를 보면, 비록 경제적 자원이 결혼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은 성별에 따라 (+), (-)로 차이가 나지만, 경제적 자원이 결혼 가능성의 변량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결혼 태도 영향 요인

변수	B	β	t
애착유형(더미)	-0.20	-0.01	-0.22
미래확신성	0.19	0.09	1.15
자기수용성	0.55	0.17	2.35*
주체성	0.02	0.01	0.07
성별(더미)	5.42	0.38	6.05***
연령	0.07	0.01	0.22
수급여부(더미)	-2.21	-0.14	-2.16*
F	8.311***		
수정된 R ²	0.197		

※ 애착유형 기준변수는 안정형, 성별의 기준변수는 여자, 수급여부의 기준변수는 비수급임
* p<.05, ** p<.01, *** p<.001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 세상일들은 결국 허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등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에 진학한 시설보호 청년의 결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생은 발달단계상 성인이행기에 속하는 연령층으로 사랑, 결혼, 취업이라는 주요한 발달과업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발달과업 가운데 하나인 사랑, 즉 친밀하고 낭만적인 관계(이성교제), 그리고 결혼(생활)은 원가족 경험과 관련성이 깊은 주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원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후 가족과 헤어져 시설에서 생활하였고 이제 공식적인 사회적 보호의 종료(퇴소)를 앞두고 있는 시설보호 청년, 그래서 새로운 가족 형성을 둘러싼 선택에 놓인 시설보호 청년에게 이성과의 친밀감, 사랑, 결혼은 특히 중요한 이슈이다.

이러한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설보호 청년이 경험하는 친밀한 관계, 사랑, 결혼의 이슈를 중심 연구 주제로 다룬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시설보호 청년의 결혼 태도와 영향 요인이라는 주제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결혼 태도 영향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원가족과의 관계 경험 속에서 형성되는 애착유형,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으로 친밀감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자아정체감, 그리고 성별, 연령, 경제수준 등의 인구사회적 요인들이다. 사실 시설보호 청년의 결혼 태도에 관한 연구는 처음이기 때문에 비시설보호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 영향 요인으로 밝혀진 것들을 중심으로 탐색적인 수준에서 영향 요인들과 결혼 태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에 진학한 시설보호 청년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호의적이었다. 이들은 결혼을 외로움을 덜어주고 사람을 성숙시키는 바람직하고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동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더 많았지만 재혼에 대해서는 다소 호의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또한 결혼이

6) 이성관계(교제)와 결혼, 그리고 가족형성은 모두 배타적이면서 상호 책임을 전제할 이원적·낭만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또한 이성교제 경험은 배우자 선택, 결혼(생활) 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성관계(교제), 결혼, 가족형성을 상호 관련성이 매우 높은 개념들이다.

경제적 안정을 가져온다는 인식에서도 다른 문항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시설보호 청년은 퇴소와 함께 취업을 통해 경제적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고 친밀한 관계의 형성을 통해 심리정서적 안정을 찾으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은 결혼을 경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외로움을 덜어주는 심리적 측면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본 연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둘째, 결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자아정체감, 경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남자가 여자에 비해 결혼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아정체감의 경우 하위 요소인 자기수용성, 즉 자신에 대한 신뢰(자신감) 정도가 높을수록 결혼 태도가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여부를 통해 경제 상태를 측정한 결과 수급을 받고 있는 대학생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에 비해 결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대학에 진학한 시설보호 청년은 결혼을 대체로 호의적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결혼에 대해 외로움을 덜어주는 바람직한 제도라는 인식이 강했다. 사실 결혼을 통해서만이 외로움이 해소되고 결혼을 통해서만이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설보호 청년은 시설 퇴소와 더불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원천 중의 하나였던 시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상황, 그렇다고 원가족과의 관계가 퇴소와 더불어 갑자기 친밀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그야말로 관계 빈곤(network poor)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결혼을 통한 외로움의 해소와 심리적 안정감의 제공은 유일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유효한 선택일 수 있다. 더욱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 초기의 불안정한 애착관계 경험이 극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배우자 선택, 결혼은 시설보호 청년에게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시설보호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 대체로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자립으로 향해 가는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하나⁷⁾

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시설보호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 보다 호의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영향 요인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 성별, 경제 수준, 자아정체감(특히 자기수용성) 등이 호의적 태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보호 여성의 경우 결혼에 대한 태도가 남성에 비해 부정적이었던 것은 결혼 자체가 여성에게 보다 불리한 사회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측면으로는 비시설 여성에 비해 출산과 양육에서 원가족 지원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시설보호 여성의 경우 원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어려운 미혼모의 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겠다.

또한 경제 조건이 결혼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5)에 의하면 저출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만혼이나 비혼에 주목하고 있는데, 만혼이나 비혼은 많은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에 기원한다[52]. 그만큼 결혼에서 경제적인 문제는 중요하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는 시설, 비시설 구분 없이 모든 청년에게 절박한 이슈이다. 그러나 비시설보호 청년에 비해 시설보호 청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시설보호 청년이 기대하는 결혼, 즉 외로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는 결혼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때 결혼은 이들에 대한 경제적 자립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결혼이 자립으로 나아가는 여러 갈래의 길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결혼 선택에 대해 호의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을 하게 되며, 이것은 앞서 살펴본 ‘획득된 안정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시설 청년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부정적인 관계 경험이 많은 시설 청년의 경우 결혼은 이전의 부정적 경험의 연쇄 고리를 끊고 삶에서 가역적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결혼을 시설 청년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기회 중의 하나로 생각하며 결혼에 대해 잘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결혼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결혼에 대한 호의적 태도에서 출발한다. 결혼 태도가 호의적이어야 결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본 연구자는 결혼을 자립으로 향해가는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결혼을 꼭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과 다르다.

7) 시설 청년은 안정형 이성과의 교제, 결혼을 통해 지지적 관계 경험

결혼의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결혼을 하는가, 결혼생활만족도나 결혼생활의 질 등이다. 즉, 결혼이 자립으로 나아가는 여러 갈래의 길 중의 하나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벗어나, 보다 확실한 자립의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결혼생활의 질이 매우 중요하다. 바로 이러한 측면 때문에 결혼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자아정체감, 특히 자기수용성이 중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도 자아정체감을 결혼관[33], 결혼 후 심리적 안녕[53]에서 중요한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 김순기(2001)는 결혼 후 심리적 안녕을 긍정적 정서와 우울로 측정하였는데 남녀 모두에서 자아정체감이 결혼 후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3]. 이러한 결과는 자아정체감이 결혼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결혼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 시설보호 청년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 정선옥(2015)은 이들 청년의 또 다른 발달과업의 하나인 취업과 연결된 진로준비행동 영향 요인으로도 자아정체감의 영향력을 밝힌바 있다[54]. 본 연구에서도 취업과 더불어 중요한 발달과업인 친밀한 관계형성, 즉 결혼에서도 자아정체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진로준비행동에서는 자아정체감 가운데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인식(미래확신성),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주체성) 등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54], 본 연구에서는 자기수용성이 결혼 태도에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시설보호 청년의 자아정체감이 성인이행기에 있는 이들의 두 가지 주요한 발달과업(진로, 결혼)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시설보호 청년들이 자립을 향해가는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결혼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러한 결혼이 시설보호 청년에게 “안정적 기반(secure base)”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책적·실천적 차원의 지원이 모두 필요하다. 우선 정책적 차원에서는 비시설 청년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시설보호 청년의 취업보장, 출산과 양육의 부담 완화 등이 요구된다. 특히 시설보호 청년의 경우 원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이 미약하거나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적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이들이 결혼생활을 잘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개인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 개인 차원의 지원에서 자아정체감 형성이 중요하다.

이제까지의 결혼을 둘러싼 실천적 차원의 지원은 예비부부교육, 결혼준비교육 등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교육은 부부관계, 결혼 후 가족관계 등에 대한 경험이 없고 건강한 관계형성에 필요한 모델이 부재했던 시설보호 청년에게 있어 결혼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결혼 후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 때문에 필요하다. 실제로 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원가족에 대한 분노 해소 및 올바른 부모역할에 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준비를 미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이 개발·실행된 경우도 있다[16]. 이 프로그램은 시설보호 청소년들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춰, 1단계: 자기이해(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2단계: 가족이해(가족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돕기 위해 청소년의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 및 대화방법, 가족 사랑을 습득할 수 있는 가족체험프로그램), 3단계: 부모역할 이해(이상적인 가족체 부모역할을 정립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비시설 청소년과 다른 상황에 처한 시설보호 청소년에 특화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이다. 이처럼 시설보호 상황에 맞춰진 예비부모교육, 결혼준비 프로그램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한편, 결혼이나 부모 되기 이전에 건강한 이성 관계에서 필요한 상호 이해, 존중, 책임, 신뢰, 독립, 의존 등에 관한 자신의 비전을 모색하도록 하는 조치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단발적인 프로그램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하는 내내 이들의 “관계”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사람은 사회적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으며 결혼은 친밀하며 낭만적이며 역할과 책임이 공존하는 관계들의 복합체이다. 부부관계가 그렇고 부모-자녀관계가 또한 그러하다. 이러한 “관계”들은 원가족과의 유대 강화,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못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 자신의 뿌리를 찾는 것 등과 같은 자아정체감 이슈

와 관련된다. 자아정체감은 ‘원가족에 대해 아는 것’, ‘나의 과거 관계에 대해 아는 것’, ‘과거와 현재를 조화시키는 것’, ‘과거부터 중요한 사람과 적절히 만나는 것’,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것’ 등을 통해 달성된다[55]. 이것은 예비부모교육, 결혼준비프로그램의 단기 적용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며 시설보호를 받게 되는 순간부터 시설 퇴소할 때까지, Thoburn(1998)이 제시[55]한 자아정체감 형성 노력을 Ready? Action! 프로그램에 녹여내고 이를 통해 시설보호 아동이 “자신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하는 등의 장기적인 관점의 개입 또한 요구된다.

대학에 진학한 시설보호 청년의 결혼 태도와 영향요인을 살펴 본 연구는 이제까지 다뤄진 바 없는 결혼이라는 주제를 다루었고 결혼 태도 영향요인의 발견을 통해 시설보호 청년의 이성교제, 사랑과 친밀감 형성, 결혼 선택 등을 지원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 즉 성별, 경제 수준, 자아정체감 등을 발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성교제나 결혼을 둘러싼 시설보호 청년만의 고충을 깊이 있게 발견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는다. 또한 시설보호 청년의 원가족 관계 경험이 애착유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애착유형이 낭만적 관계를 설명하는 매우 유용한 변수라는 점 등에도 불구하고 애착유형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오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재검증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광금주, *흔들리는 20대-청년기 생애설계심리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2] 이옥경, 박영신, 이현진, 김혜리, 정윤경, 김민희 공역, *생애발달 II*,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9.
 [3] W. Beyers and I. Seiffge-Krenke, “Does identity precede intimacy? Testing Erikson’s theory on romantic development in emerging adults of the 21st century,”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25, No.3, pp.387-415, 2010.
 [4] 정선욱, *시설보호 청년의 적응 - 대학에 진학한*

시설보호 청년의 진로발달과 결혼태도, 서울: 집문당, 2014.
 [5] https://www.fosterclub.com/sites/default/files/FosterCareYouth_4.pdf, pp.140-162, 1996.
 [6] R. Saunders, D. Jacobvitz, M. Zaccagnino, L. M. Beverung, and N. Hazen, “Pathways to earned-security: the role of alternative support figures,”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Vol.13, No.4, pp.403-420, 2011.
 [7] 김미현, *대학생의 원 가족 심리적 특성과 성별이 결혼태도 및 자녀태도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8] 박정운, 김예리, “미혼 성인자녀의 부모-자녀 간 유대감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심 지각이 결혼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8권, 제4호, pp.13-24, 2010.
 [9] 김진희, *원 가족 접촉에 따른 시설보호 아동의 행동문제 비교연구: 서울시 소재 아동양육시설 아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0] 강현아, 신혜령, 박은미, “시설 퇴소청소년의 성인전환 단계에 따른 자립 및 사회적응 현황,” *한국아동복지학*, p.30, pp.41-69, 2009.
 [11] 강향숙,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가진 미혼여성의 이성 관계 경험*,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2] 김명성, *시설퇴소청소년의 자립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3] 권지성, 정선욱, “아동양육시설 퇴소생의 퇴소 후 생활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3호, pp.229-25, 2009.
 [14] 이양숙, “육아시설 jdshsu의 부모 체형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30권, 제2호, pp.452-462, 2004.
 [15] 김대원,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초기 삶에 대한 질적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6] 배은숙, 강기정, “시설청소년의 가족 인식 및 건강가정 형성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요구 - 시설 청소년과 퇴소자 대상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0권, 제2호, pp.107-125, 2006.

- [17] I. K. Hanson, *Emancipated foster care youths' romantic relationships as observed by social workers*, Master of social work clinical research papers, St. Catherine University · University of St. Thomas, 2013.
- [18] 노혜련, 장정순, 백은형, *시설아동의 심리사회적 실태와 상담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단체협의회, 1997.
- [19] M. Stein, "Young people aging out of care: The poverty of theor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p.28, pp.422-434, 2006.
- [20] 강기정, 배은숙, "시설보호청소년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부모교육연구*, 제5권, 제1호, pp.23-42, 2008.
- [21] 정선옥, *시설보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22] J. A. Simpson and W. S. Rholes, "Attachment in adulthood," In J. A. Simpson, and W. W. Rholes(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New York: Guilford Press, 1998.
- [23] K. G. Rice, "Attachment in adolescence: A narrative and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19, No.5, pp.511-538, 1990.
- [24] 장희숙, "애착의 전 생애 모델과 대물림: 전 생애 발달심리학적 조망에서 애착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제16권, 제1호, pp.80-97, 1997.
- [25] 전효정, "유아기 부모와의 애착경험이 성인기 애착유형과 배우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보육연구*, p.5, pp.21-34, 1999.
- [26] 하은혜, 전정미, 유미숙, 이소희, 조유진, "고등학생의 이성관계의 질에 관한 설명모형,"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제11권, 제1호, pp.101-115, 2008.
- [27] 민순옥,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과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이성 관계 태도가 결혼태도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28] 안소영, *가족기능과 대학생의 애착유형 및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29] M. Main, N. Kaplan, and J. Cassidy,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and E. Waters(eds.) *Growing point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50, No.1/2, pp.66-104, 1985.
- [30] 강진경, *아동기 어머니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 유형과 성인기 사랑유형의 성차*,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31] J. A. Feeney and P. Noller, "Attachment styles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8, No.2, pp.281-291, 1990.
- [32] 박남숙,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이 이성교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7권, 제1호, pp.197-215, 2005.
- [33] 한누리, 문혁준, "대학생이 지각하는 자아정체감과 부모의 부부관계가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4권, 제2호, pp.205-218, 2015.
- [34] 양명숙, "예비 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에 대한 연구 - 대전 지역의 남, 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34권, 제2호, pp.167-181, 1996.
- [35] 이삼식,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제26권, 제2호, pp.95-140, 2006.
- [36] 김건영, *대학생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37] 홍은영, *미혼성인의 결혼의향 및 태도와 부모의 존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석사학위논문, 2011.
- [38] 백경숙, 김효숙, "대학생의 자아 존중 감, 성역할 태도와 가족기능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회*, 제18권, 제3호, pp.205-223, 2013.
- [39] 김홍설, 이문진, 황선환, "직장여성의 결혼에 따

른 여가계약과 여가협상,”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호, pp.242-251, 2015.

[40] 최수찬, 고수연, 이지연, 이희중,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여성근로자들의 일-가정양립갈등과 생활만족 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8호, pp.293-303, 2015.

[41] 김정석,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분석,” 한국인구학, 제29권, 제1호, pp.57-70, 2006.

[42] 김보경, *대학생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43] 김예리, *가족생태이론에 기초한 미혼 남녀의 결혼관과 관련변인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44] 우희경, *시설보호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45] K. Bartholomew and L. M. Horowitz,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s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1, No.2, pp.226-244, 1991.

[46] 박아청,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5권, 제1호, 1996.

[47] 문승태,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과 심리적 변인간의 인과관계*,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48] 조명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49] J. J. Arnett, “Emerging adulthood -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Vol.55, No.5, pp.469-480, 2000.

[50] 김현, 홍영선, “대학생의 생식건강에 대한 태도, 결혼관 및 자녀관,”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제14권, 제1호, pp.13-24, 2013.

[51] 유홍준, 현성민, “경제적 자원이 미혼 남녀의 결혼 연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제33권, 제1

호, pp.75-101, 2010.

[52]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15.

[53] 김순기, *기혼자녀가 지각하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이 결혼 후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54] 정선옥, “대학에 진학한 시설 퇴소 청년의 진로준비행동 영향요인-사회적 지지와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6권, 제1호, pp.191-214, 2015.

[55] J. Thoburn, *Child placement: Principles and Practice*(2nd), Arena, 1988.

저 자 소 개

정 선 옥(SunWook Jung)

정회원



- 1993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학사)
- 1995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석사)
- 2002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박사)

• 2008년 9월 ~ 현재 :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 아동복지, 가정의 보호 아동, 아동권리, 빈곤 아동

이 민 정(MinJung Lee)

정회원



- 2011년 8월 :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학사)
- 2015년 2월 :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석사)

<관심분야> : 아동 및 청소년복지, 가족복지